지역발전위원회 강원권 세미나

강원권의 지역산업과 일자리 동향

2012. 2. 23.

강원발전연구원 일자리·인재개발센터
염돈민

CONTENTS

Ⅰ. 개황

Ⅱ. 지역산업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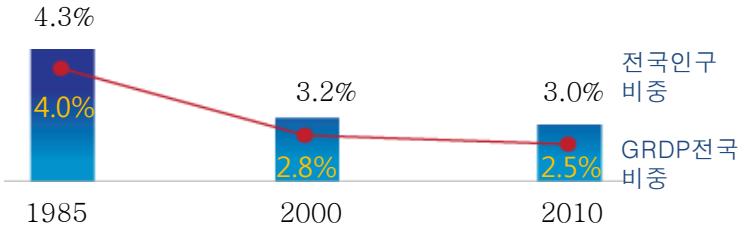
Ⅲ. 경제활동과 일자리 동향

Ⅳ. 일자리 수급전망

Ⅴ. 일자리 정책의 방향

Ⅰ 개황

○ 인구 및 경제력 비중의 저하추세



- 1인당 GRDP 15천불 수준

○ 인구구조 : 급격한 고령화, 생산연령층 감소

인구구조의 실태

연도	지역		15세 미만	경제활동대상인구							65세 이상
				15-19	20-29	30-39	40-49	50-59	60-64	소계	
2010	전국(%)		16.2	7.2	13.7	16.2	17.1	13.7	4.5	72.5	11.3
	강원	%	15.7	7.0	12.2	13.8	16.3	14.8	4.8	68.9	15.5
		천명	229	102	178	201	238	217	69	1,007	226

고령화 추세	연도별	1990	2000	2010	2020	2030
	전국	5.3	7.3	11.3	15.6	24.3
	강원도	7.1	9.9	15.5	20.4	31.1

자료 :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및 장래인구추계(2007년 발표)

○ 취약한 강원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09년)

(단위 : 개소,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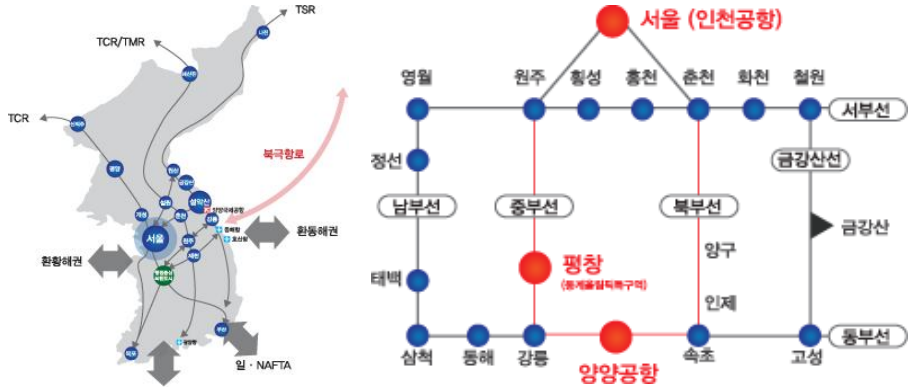
구분	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	부동산업 임대업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 등	기타(전기 가스/수도/ 금융 등)
사업체수 (A)	117,569	145	141	6,181	4,186	28,929	33,520	3,212	13,762	27,493
	100.0	0.1	0.1	5.3	3.6	24.6	28.5	2.7	11.7	23.4
종사자수 (B)	479,165	1,786	5,349	42,029	35,927	72,847	82,272	10,640	28,162	200,153
	100.0	0.4	1.1	8.8	7.5	15.2	17.2	2.2	5.9	41.8
B/A	4.1	12.3	37.9	6.8	8.6	2.5	2.4	3.3	2.0	7.3

강원도의 기회와 도전

1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패러다임 혁신	로컬/하드파워	⇨	글로벌/소프트파워
	'평화'는 비용	⇨	평화는 시장의 경제가치
	개별적 경쟁	⇨	통합적 경쟁
산업기반 혁신	개별적 산업육성	⇨	통합/융합적 신산업화
	전통산업 사양화	⇨	첨단의 신수종산업화
	단순 서비스	⇨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산업
문화기반 혁신	전통문화의 박제화	⇨	살아있는 콘텐츠 산업
	단순 생활음식	⇨	고부가가치의 식품문화산업
	낮은 생활문화 접근도	⇨	문화수준의 선진화
인프라 혁신	교통 : 도로망 중심	⇨	철도 중심의 다중체계
	성장거점 : 개별지역	⇨	지역 연계 클러스터
	환경 : 개발/보전의 이원화	⇨	개발/보전의 통합

2 SOC : 북극항로와 目자형 철도망



3 산업혁신

강원도 산업혁신의 전략적 접근

산업거점 형성 전망도

Ⅱ 지역산업의 실태

1. 제조업이 취약한 산업구조

○ 저조한 산업활동

구 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09
지역총생산 (조원, %)	강원(A)	17.0	19.4	22.5	24.1	26.3	27.6
	전국(B)	603.7	723.5	829.5	912.9	1028.5	1066.1
	A/B(%)	2.81	2.68	2.71	2.64	2.56	2.59
1인당 생산액 (만원)	강원도 (전국대비)	1119 (0.872)	1285 (0.846)	1501 (0.869)	1631 (0.863)	1801 (0.851)	1883 (0.861)
	전 국	1284	1519	1727	1890	2116	2186
전년대비 GRDP 성장률(%)	강원도	6.6	8.8	4.6	4.9	1.2	3.9
	전국	9.6	11.3	7.4	5.0	4.6	3.6
산업생산 구조(%)	농림어업	8.3	8.1	7.1	6.2	5.2	5.7
	제조광업	18.5	15.5	15.4	13.3	14.1	14.5
	전기가스 수도건설	13.1	13.2	14.7	14.9	12.1	13.0
	서비스업	60.1	63.2	62.9	65.6	68.6	66.8

- 지역총생산 비중의 저하 → 1인당 GRDP의 저조
- GRDP 성장률의 저조 ← 산업구조의 낙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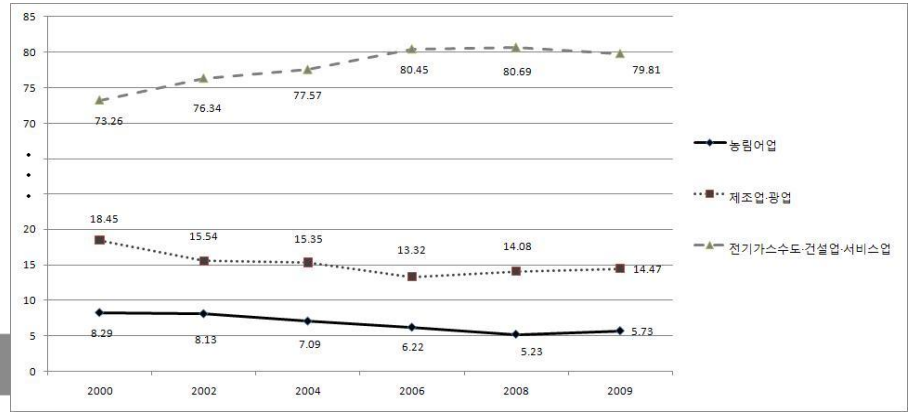
○ 광업 및 농업의 상대적 높은 비중

- 전국 평균에 비하여 41%에 불과한 제조업 생산비중
-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의 비중이 전국보다 높은 구조
- 농림어업의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하여 두 배 이상 많은 구조

전국과 비교한 강원도의 산업구조 특징

구 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09
농림어업	1.73	2.08	1.97	2.00	2.00	2.11
제조업	0.49	0.47	0.45	0.38	0.39	0.41
광업	15.66	11.67	14.5	15.00	16.50	15.50
전기가스수도	1.12	0.85	0.88	1.04	1.23	1.39
건설업	1.49	1.54	1.62	1.67	1.48	1.50
서비스업	1.05	1.05	1.08	1.10	1.12	1.10

주 : 강원도의 부문별 비중(%)을 전국의 부문별 비중으로 나눈 수치



2. 국가선도산업 부재

- 석탄산업 쇠퇴 이후 산업구조 조정지연
- 제조업 부가가치의 70%를 차지하는 5대 주력업종 중 3개가 부존자원 채취 및 단순가공업
- 지식기반제조업 생산비중 8.6%(전국 평균 28.2%)
- 국내 1000대 기업 중 강원도 본사 5개 : 강원랜드, 라파즈한라시멘트, 한라엔컴, 대명레저산업, 요진건설산업

【지역별 국가선도산업】

경 기	경 남	경 북	전 남	울 산
전자부품 (42.5%)	선박 (45.8%)	전자통신 (45.8%)	철강 (49.8%)	석유화학 (53.6%)

주 : ( )내는 관련업종의 전국산출액 대비 비중(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기준)

자료 : 강원TP

【강원지역 주력제조업 및 지식기반제조업 생산비중[1]】

지 역	식료품	음료	비금속 광물	의료 기기	자동차 부품	계	지식기반 제조업[2]
강 원	15.6	14.2	25.2	5.1	9.5	69.6	8.6
9개도평균	5.3	1.6	4.0	1.5	4.9	17.4	34.4
전 국	4.7	1.3	3.2	1.5	5.0	15.6	28.2

* 주 : 1) 지역내 부가가치 대비 비중(2007년)
2) 바이오, 전자부품, 정밀기기 등

3. 서비스산업 고도화 미약

- 전통서비스업의 성장기여율이 지식기반서비스업보다 훨씬 높음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GRDP비중 24.3%(전국평균 27.3%)

【강원지역 서비스산업의 성장률[1] 및 성장기여율】

구 분	1986~2008	시기별 구분				GRDP내 비중[4]
		1986~1989	1990~1997	1999~2003	2004~2008	
GRDP 성장률	4.4	7.7	5.6	5.3	2.3	
서비스 산업	5.1 (65.3)	8.3 (54.8)	6.2 (58.1)	5.9 (61.9)	3.5 (89.0)	68.4 <60.5>
(전통서비스업)[2]	4.5 (39.1)	8.1 (39.1)	5.5 (37.0)	4.5 (31.2)	3.5 (57.3)	44.1 <33.2>
(지식기반서비스업)[3]	6.5 (26.2)	8.7 (15.7)	7.7 (21.2)	8.8 (30.8)	3.4 (31.6)	24.3 <27.3>

주 : 1) 불변가격 기준
2)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기타서비스업
3)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4) 2008년 당해년가격 기준, < >내는 전국 기준
5) ( )내는 성장기여율(산업별GRDP 증감/산업전체GRDP 증감)×100

자료 : 강원TP

<과제>
- 제조·광업비중을 20% 이상 제고
  * 2009년 14.5%로 2000년 18.5% 수준을 아직 미회복
- 국가 선도산업, 수출주도산업 및 지식기반산업 비중 제고
- 서비스업 고도화 추진

Ⅲ 경제활동과 일자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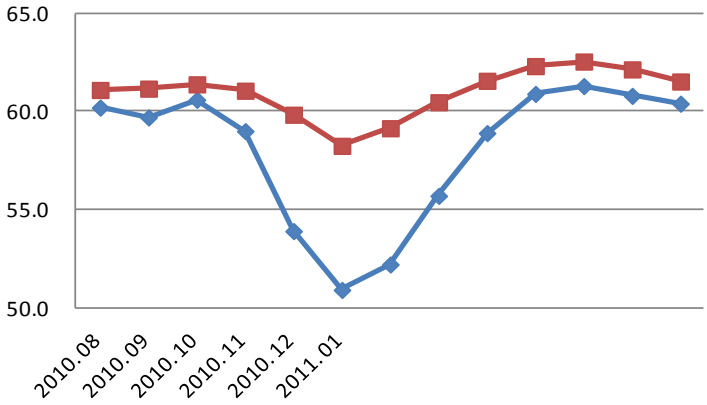
강원도 경제활동인구(2010) 실태

구분		경제활동인구(천명)	경제활동참가율(%)	고용율(%)	실업률(%)
계		685	57.6	56.1	2.6
성별	남	393	67.8	65.8	2.9
	여	292	47.9	46.9	2.1
연령계층	15-19	5	4.8	4.4	6.3 (6천명)
	20-29	90	61.0	57.5	
	30-39	149	75.4	73.9	2.4 (8천명)
	40-49	186	77.2	75.9	
	50-59	149	67.8	66.3	1.2 (3천명)
	60-	107	37.0	36.2	
	15-64	617	63.4	61.7	-
	15-24	37	22.9	21.6	
	15-29	94	38.8	36.5	
교육수준	≥중졸	226	43.0	42.4	1.3 (3천명)
	고졸	259	65.2	63.2	3.1 (8천명)
	대졸≤	200	75.2	72.9	3.0 (6천명)

○ 경제활동 특성 : 경제활동 참가율 ↓, 계절별 편차, 취업구조에서 농림어업/공공부문 비중 ↑

- 경제활동참가율(특히 여성) ↓
- 경제활동의 계절별 편차 ↑
- 농림어업 및 공공서비스 부문 비중↑
  *행정+교육+복지=20.6%
- 제조업 부문 비중 ↓

계절별 경제활동 참가율 편차



취업구조 추이(2010년/2008년)

(단위: %)

전체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1)	하수 등 2)	건설업	도소매
2010년 694천명 ↑ 2008년 707천명	17.9/20.9	1.0/1.1	6.3/6.6	1.0/0.8	0.4/0.3	7.8/7.9	12.4/12.4
	운수	숙박 음식점	출판영상 3)	금융보험	부동산, 임대	전문과학 4)	사업시설 5)
	3.9/3.8	11.0/11.3	1.2/1.3	3.2/2.7	1.6/1.6	1.7/1.4	2.9/2.4
	공공행정 6)	교육 서비스	보건복지 7)	예술 스포츠 8)	협회단체 9)	자가소비 10)	국제외국 11)
	7.1/5.7	7.6/8.1	5.9/4.4	2.0/1.8	4.9/4.8	0.4/0.4	0.0/0.0

주) 1. 전기가스증기수도, 2.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 3.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4. 전문과학·기술서비스, 5.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 6.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7. 보건사회복지서비스, 8.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 9.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 10. 가구내고용활동·자가소비, 11. 국제 및 외국기관

자료 : 통계청 KOSIS

○ 취업구조 특성 : 사업체 종사자 비중↓, 단순노무 등 근로자 ↑, 자영업자 ↑

【전체 취업자 중 사업체 종사자(2009년)】

(단위 : 천명)

전체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1)	하수 등 2)	건설업	도소매
사업체 종사자 = 479천명	1.8/133	5/7	42/45	3/7	2.8/3	36/58	73/85
	운수	숙박 음식점	출판영상 3)	금융보험	부동산 임대	전문과학 4)	사업시설 5)
취업자 = 708천명 ⇓	25/29	82/73#	7/9	19/21	11/12	10/11	12/17
	공공행정 6)	교육 서비스	보건복지 7)	예술 스포츠 8)	협회단체 9)	자가소비 10)	국제외국 11)
479/708*	30/57	45/54	31/37	15/16	28/32	-/2	-

주) *각 칸의 수치는 '사업체종사자/해당 산업부문 총 종사자'를 의미, # : 통계상 불일치

1. 전기가스증기수도, 2.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 3.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4. 전문과학·기술서비스, 5.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 6.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7. 보건사회복지서비스, 8.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 9. 협화·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 10. 가구내고용활동·자가소비, 11. 국제 및 외국기관

자료 : 통계청 KOSIS의 전국사업체조사 및 경제활동조사를 가지고 재구성

- 전체 취업자 중 사업체 종사자 67.7%
- 가장 많은 사업체 종사자는 숙박음식과 도소매 부문 155천명 : 전체 취업자의 22%, 사업체 종사자의 32%
- 제조업 사업체 종사자는 42천명에 불과 : 전체 취업자의 6%, 사업체 종사자의 8.8%
- 공공행정·교육·보건복지 부문 106천명 : 전체 취업자의 16%, 사업체 종사자의 22%
- 5인 이상 사업장의 인력 부족율 : 2.8% ⇒ 13천명 수준

【2010년 현재 직업별 취업자 비중(%)】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숙련	기능원 관련기능	장치기계 조작조립	단순노무
0.7	13.8	13.0	13.0	11.8	16.9	7.9	8.5	14.6

- 직업별 취업자의 경우 농림어업 숙련자와 단순노무 비중 높음
- 도내 자영업자는 20만명 수준으로 전국보다 높은 비중
- 임근로자비중, 무급가족종사자 비중 등 전반적인 취업의 안정성 지표도 전국 평균보다 안 좋은 상황 ⇒ 추세로는 개선되고 있음

【강원도 취업의 안정성 관련지표】

(단위 : %)

구분	지역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자영업자 비중	강원	32.8	33.3	31.8	31.6	32.2	27.2
	전국	27.6	28.1	27.0	26.5	25.4	23.6
무급가족종사자 비중	강원	14.3	12.3	9.6	10.2	8.4	6.5
	전국	9.5	8.4	7.1	6.5	6.4	5.5
임금근로자 비중	강원	52.8	54.6	58.6	58.2	59.4	66.5
	전국	62.8	63.6	65.9	67.0	68.5	70.9
상용근로자 비중	강원	29.1	27.3	29.6	31.3	33.9	35.5
	전국	29.8	30.6	33.4	34.8	37.6	41.6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2010. 2/4분기 기준)

○ 강원도 청년층의 외지 유출현상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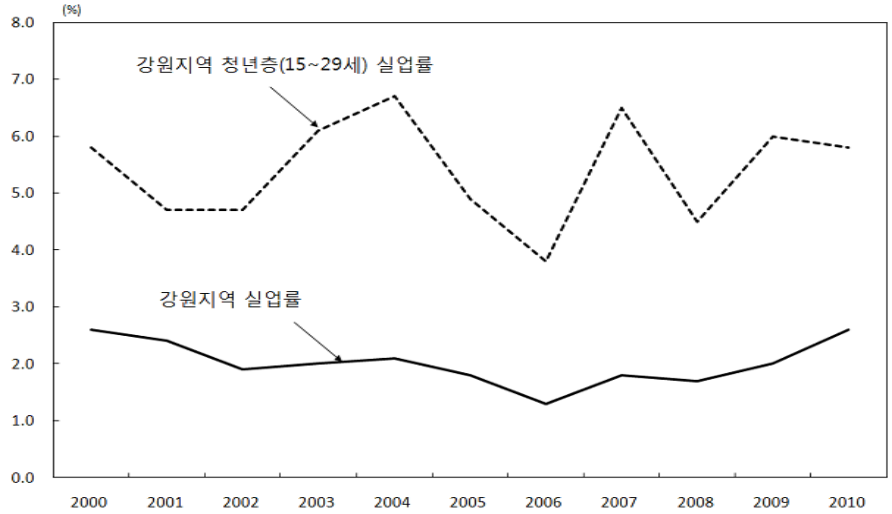
- 강원도의 청년실업률(2010년 5.8%)은 전국 수준(8%)보다 낮음
- 이는 지역 청년층의 지속적 역외유출로 인한 결과로 추정
- 경제활동인구의 학력구조를 보더라도 전국에 비하여 중졸의 비중이 현저히 높고 대졸의 비중이 낮은 모습
-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현실의 반증인 동시에 고학력 청년층 역외유출의 원인으로 작용

【경제활동인구의 성별 학력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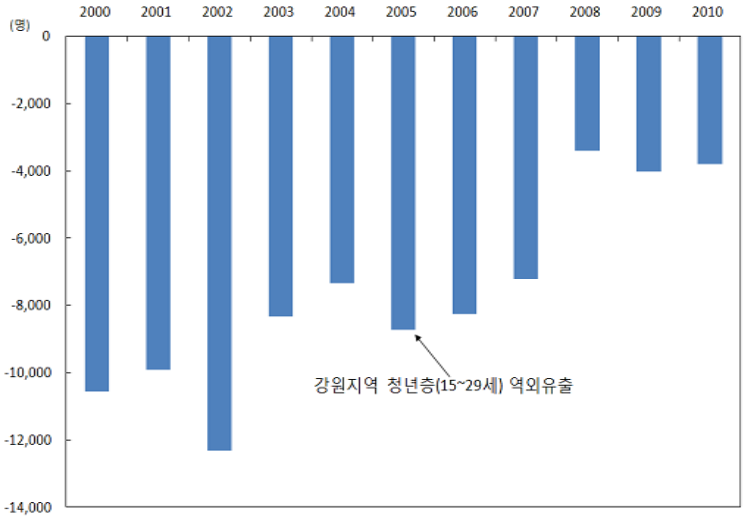
구 분	강 원			전 국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중학교 졸업 이하	25.7	39.1	31.5	16.8	26.8	21.0
고등학교 졸업	40.8	33.6	37.6	40.7	38.3	39.7
대학교 졸업 이상	33.7	27.4	30.9	42.5	34.9	39.3

자료 : 통계청, KOSIS

【강원지역 청년실업률】



【강원지역 청년층 역외유출】



Ⅳ 일자리 수급전망

1. 일자리 공급전망

○ 특히 제조업 부문의 성장과 구조고도화로 인하여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일자리가 크게 창출될 전망
- 전략산업(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방재)은 지난 10년 동안 연 10%대 이상의 꾸준한 성장세 지속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료관광, 의료융합)의 경우도 짧은 기간에 불구하고 가파른 성장 시현

<도 계획>
- 기존의 전략산업, 선도산업과 연계하여 대표주력산업 도출 및 육성 ⇒맞춤형 의료산업,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지속육성
- 미래성장동력산업 도출 및 육성 ⇒ 녹색소재부품산업, 신소재.방재산업 지속육성
- 삼척 등 남부고원해양권을 중심으로 복합에너지산업 육성

○ 또한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강원도형 서비스산업의 고도화와 더불어 서비스산업부문의 일자리 창출구조도 변화예상
- 의료관광 등 지식기반산업과 연계된 전문서비스업 성장전망
- 관광과 연계된 MICE 등 전문서비스업 및 관광부문 고도화
- 사회적 서비스(사회적 기업 등) 부문의 성장

○ '소득 2배' 목표 달성과 고용창출 확대효과

- 2020년까지 30만개 신규일자리 창출 추정

GRDP목표 달성을 위하여 산업부문별 필요 고용창출수(추정)

산업별	고용계수 가정	2010 현재	2011-2015	2016-2020	2011-2020 누계
전체	-	694천명	134	199	333
농림어업	줄어드는 추세	124천명	-23	-10	-33
제조광업	6.8(기타전자부분품)	51천명	18	45	63
전기가스수도건설	8.1(일반토목)	61천명	13	16	29
서비스업	11.6(도소매)	458천명	126	148	274

*산업부문 혁신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이보다 고용창출이 줄어들 가능성

2. 일자리 수요전망

*2010년 현재를 기준으로 전망

○ 실업자 : 17,000명

○ 비경제활동인구 : 48만명(여성 30만)

- 비경제활동인구 48만명(여성 30만명)
- 30대-50대 16만명(남38천, 여122천)
- 비경제활동인구의 96.7%가 취업포기
  ⇒ 여성들 64%(20만명)가 육아가사 이유
- 고령자들의 일자리 수요 증가 : 59% 희망

○ 일자리 수요전망 : 14만명 내외
- 실업자 : 1만 - 2만명
- 취업준비자 : 1만명 내외
- 비경제활동인구 중 희망자 : 12만명

*2011. 10 서베이 결과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 24%

2010년 강원도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구분	계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전체	480천명	154	45	51	64	166	268	157	56
남	177천명	80	7	13	18	59	93	63	20
여	304천명	74	38	38	46	107	174	94	35

활동상태, 취업희망여부별 비경제활동인구(2010)

구분	계	육아가사	재학진학준비	취업준비	연로	기타	취업희망	
							희망	안함
전체	480천명	201	125	11	63	80	17	464 (96.7%)
남	177천명	6	69	7	33	62	8	169 (95.5%)
여	304천명	195 (64.1%)	56 (18.4%)	5	30 (9.9%)	18	9	295 (97.0%)

3. 일자리 수급균형 전망

<수급균형 전망>
- 2020년 일자리 공급 총 100만개(스톡) (신규증가 30만개)
- 도내 비경제활동인구 13만명의 추가참여
- 외지인 10만명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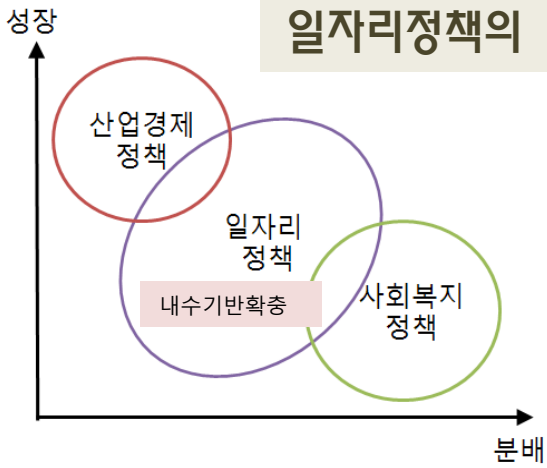
<수급균형 전략>
- 지역사회(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산업발전과 올림픽을 통한 반듯한 일자리창출
- 일자리 인프라 강화를 통한 외지인 유입촉진

2020년 일자리 100만개 스톡의 수급전략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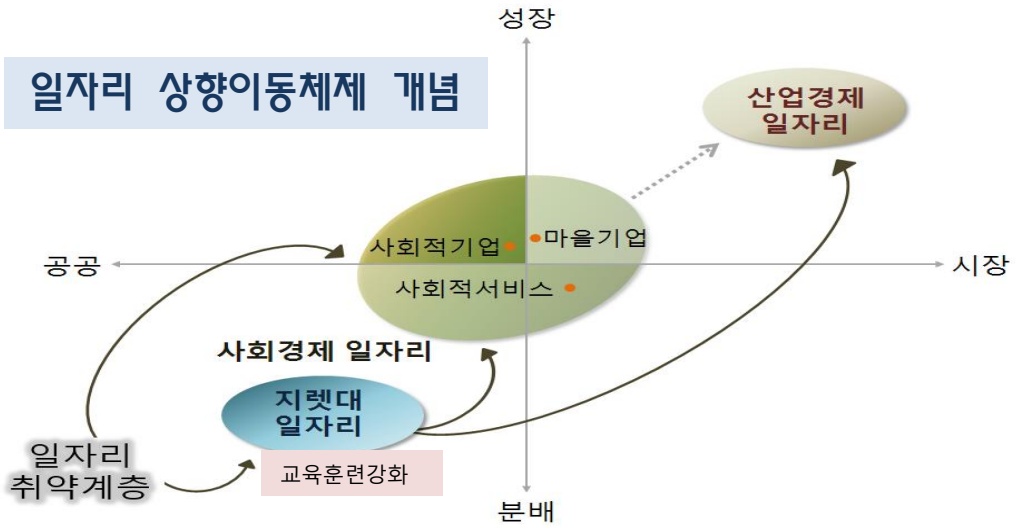
구 분	2010년 현재	2020년 전망 (도민 경제활동인구 확보)		일자리 100만개 스톡의 수급균형		인구증가/ 외지인
15세 이상 인구	120만명	132만명				
경제활동 인구	70만명	77만명(참가율 58% 적용)		100만명 (도민 90만명 +외지인 10만명) *도민 경제활동 참가율 68%	⇦	10만명
비경제활동인구	50만명	예상되는 비경제활동인구 55만명 ⇨ 추가참가 13만명=고령자 4만명+육아가사 여성 8만명 + 취업준비자 1만명	⇨			

Ⅴ 일자리 정책의 방향

일자리정책의 위치



일자리 상향이동체제 개념



□ 목표

○ 2020년 일자리 100만개 사회를 형성
- 2020년까지 3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스톡 창출

○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제고
- 현재 58%수준의 경제활동참가율을 68%로 제고
- 현재 56%수준의 고용률을 67%로 제고

○ 외부인력 10만명 유치

□ 전략

○ 사회경제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자리 상향이동체제 형성

○ 생애단계별 일자리 수급체계 구축

○ 전략산업 육성과 연계한 산업경제적 일자리 확충

○ 올림픽 일자리 브랜드 창출

○ 일자리 인프라 강화

생애단계별 일자리 수급체제의 개념

<table>
<tr><th>인생단계</th><th>현재의 일자리 생활</th><th>미래의 일자리 생활</th></tr>
<tr><td>70대 이상</td><td rowspan="2">은퇴 후 생활</td><td rowspan="2">〈제2의 경제활동기간〉
타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비용은 부담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사회서비스 비용은 스스로 충당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생활 일자리 필요</td></tr>
<tr><td>60대</td></tr>
<tr><td>50대</td><td>〈은퇴준비〉
경제활동의 여력 보유</td><td rowspan="2">〈일자리 주력계층으로 부상〉
full-time 일자리, multi-job 등 왕성한 경제활동에 부응하는 일자리</td></tr>
<tr><td>40대</td><td rowspan="2">〈직업현장의 주력계층〉
왕성한 사회, 경제활동의 토대로서 일자리 중요성
부모부양, 자녀양육, 세금납부 등 사회서비스 비용부담</td></tr>
<tr><td>30대</td><td>사회(취업)초년생의 증가</td></tr>
<tr><td>20대</td><td colspan="2">종래에는 대부분 취업현장에 진입, 앞으로는 학업의 연장선상에서 개인역량 연마에 더 힘을 쏟는 추세</td></tr>
</table>

강원도 일자리 부문의 비전과 핵심전략 및 추진과제

비전/목표

'일자리 2배, 활력 2배' 행복강원 만들기
(일자리 100만개 사회 창출, 경제활동참가율 68%, 고용률 67%)

전략분야	추진과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❶ 섬섬옥수 여성일자리 창출 ❷ 팔팔활활 고령자 일자리 창출 ❸ 도농협동 '4도3촌' 농어촌일자리창출 ❹ 일토불이 주민중심 풀뿌리기업 육성 ❺ 사회서비스 및 지렛대 일자리를 통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과 지역창업 활성화
산업경제·청년 일자리 창출	❶ 성장동력산업 육성 ❷ 청년창업의 활성화 ❸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생 취업확대 ❹ 우수인재 정착기반 조성
올림픽 일자리 창출	❶ 문화서비스형 일자리 창출 ❷ 지역개발 소요 일자리 창출 ❸ 자원봉사와 연계한 사회적서비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인프라 강화	❶ 사회적 서비스시장 및 인프라 확충 ❷ 일자리 지역거버넌스 구축과 지역노동시장 형성 ❸ 직업훈련체계 강화

1.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일자리 주요부문 창출목표

(단위: 개)

구 분		목표	2012	2013	2014	2015-2018	2019-2020
농어촌 일자리	일자리 수	20,000	2,000	2,000	2,000	10,000	4,000
	외지인 일자리	10,000	1,000	1,000	1,000	5,000	2,000
마을기업	일자리 수	3,000	300	300	300	1,800	300
	기업 수	200	20	20	20	120	20
사회적 기업	일자리 수	5,000	500	500	500	2,500	1,000
	기업 수	300	30	30	30	150	60
강원명장 기업	일자리 수	2,000	200	200	200	1,200	200
	기업 수	100	10	10	10	60	10

*농어촌 일자리는 사회서비스·지렛대 일자리 부문에 포함됨.

○ 농어촌 일자리 활성화
- 계절별 일자리 수급 갭 축소 : 겨울철 일자리
- 도농연계형 일자리 개발 촉진
- 귀농, 귀촌 인구를 타겟으로 한 일자리 개발

○ 마을기업 육성
- 현재 42개의 마을기업 → 역할과 위상 모호
- 지역공동화를 저지할 수 있는 마을단위 기업화
- 주민의식 및 역량강화를 통한 사업마인드 제고

○ 사회적기업 육성
- 현재 68개의 사회적기업 → 수익성 어려움
- 지역 및 사회 서비스 공급의 중심기업으로 육성
- 지역사회 일자리의 중심적 역할 수행 추진
- 수익모델 개발로 지속가능성 제고

○ 강원명장기업 육성
- 마을의 전통문화 기반 또는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기능장인(技能匠人)이 창업하여 운영하는 사업체
- 2018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강원도 독자적 일자리 브랜드사업으로 육성

→ ‘best one이 아니라 only one을 만들자’

2. 산업경제·청년 일자리 창출

○ 성장동력산업의 육성
- 전략산업 :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방재, ICT
- 지역특화산업 : 웰빙농수축산 산업, 생활의료기기, 그린에너지, 향토공예산업
- 산업성장(연고용 13% 성장)에 맞는 대학인력양성

○ 기업의 유치와 육성
- 산업단지의 체계적 개발과 기업유치 성공
-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업 고도화
- 제조업 및 농림수산업의 서비스화 촉진

→ 117천개에 불과한 사업체의 증대에 노력

○ 청년창업의 활성화
- 산학연 네트워크 확대와 마이크로 비즈니스 창업 스쿨 운영 등

○ 전문계 등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확대
- 진로·직업교육 체계화
- 사회 각계의 교육기부를 직업체험으로 연계
- 현장교육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 고졸취업기회 확대

산업경제·청년부문 일자리 창출목표

(단위: 천개)

정책수단	목표	2012	2013	2014	2015-2018	2019-2020
성장동력산업	67.0	2.5	3.0	3.5	35.0	23.0
기업유치육성	104.0	14.0	15.0	15.0	36.0	24.0
창업활성화	5.0	0.5	0.5	0.5	2.5	1.0
계	176.0	17.0	18.5	19.0	73.5	48.0

3. 올림픽 일자리 창출

올림픽부문 일자리 창출목표

(단위: 천개)

구 분	목표	2012	2013	2014	2015-2018	2019-2020
문화서비스형 일자리	5.0	0.5	0.5	0.5	3.0	0.5
지역개발 소요 일자리	10.0	1.0	1.5	2.0	5.5	-
자원봉사 연계 일자리	5.0	0.5	0.5	0.5	3.5	-
계	20.0	2.0	2.5	3.0	12.0	0.5

○ 문화서비스형 일자리

- 가장 중요한 문화상품은 식품음식과 시장
- 식품산업은 세계적으로 부가가치 높은 성장동력 산업으로 각광
- 강원도를 대표하는 음식의 개발과 표준화, 질의 확보
- 식품산업과 연계하여 강원도의 전통시장을 문화상품으로 특성화
- '청정, 신뢰, 쾌적' 의 올림픽 스테이체제 (펜션, 민박) 구축

○ 자원봉사와 연계한 일자리

- 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 네트워크 구성 및 강화
- 초.중.고등학교 올림픽 자원봉사자 양성과정 운영
- 지역별 자원봉사 학습동아리 운영
- 지역별 자원봉사 리더 발굴 및 양성

○ 지역개발 소요 일자리

- 올림픽 특구 일자리 : MICE, R&D 등
- 건강생명길 조성과 관련 건강관리 일자리
- 올림픽 연계 특화발전특구 일자리 : 비 개최 시군의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

4. 일자리 인프라 강화

○ 사회적 서비스 시장 강화
- 사회적 시장제품의 우선구매체제 구축
- 질 높은 브랜드 상품 육성
- 사회적기업 등 체계화된 사회적서비스 상품 공급체제

○ 지역거버넌스 구축
-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 행복강원일자리정책협의회(가칭) 구성
- 고용포럼(행복강원일자리포럼) 구성 확대
- 시군별 일자리협의회 또는 일자리 포럼 활성화
- 성과지표의 개발과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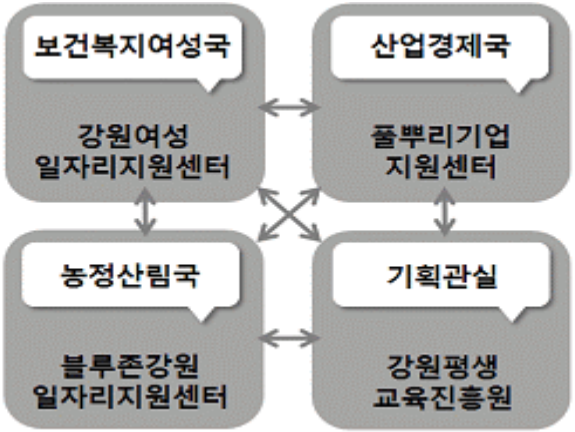
○ 일자리 DB, 정보서비스기반 확충
- DB 구축 : 강발연 일자리인재개발센터
- 서비스전달체계 구축 : 고용인재사업
- 권역별 취업촉진 연계협력사업 추진

○ 직업훈련체계 강화
- 평생교육진흥원 설립과 연계운영
- 폴리텍대학, 전문계고등학교, 대학 등 직업훈련계 교육기관 및 지역거버넌스와 연계하여 통합직업훈련체계 구축
- 대상계층별 선별적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활성화

5. 통합행정지원체계 구축

<1단계> 도청 및 시·군청의 일자리 담당부서 조직 확충
- 최소한 과 단위 조직으로 확충 → 고용정책과 또는 고용총괄과
- 타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직접 일자리창출 사업들을 통합, 운영, 관리
- 고용시장 전반에 관한 정책의 추진, 일자리 지역거버넌스 운영지원

<2단계> 일자리 지원기능 확충



<3단계> 통합시스템 구축

일자리 창출 활성화로 ‘하나된 강원도’ 실현을 견인